

수능 끝난 고3은 지금 ‘캠퍼스 투어’중

지역대학 입학설명회 잇따라...조선대 내달 5·6일 등 6회
동신대, 영화관 빌려 22·23일 등 총 6차례 3500명 초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설명회·캠퍼스 투어 등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대학들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영향권에 들면서 행사 때마다 저축 여부를 문의하는 등 ‘돌다리’를 두드리는가 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사는 아예 폐지하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조선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설명회 때 인솔 교사들을 위한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마다 수험생들을 인솔해 학교를 찾는 교사들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

고 기념품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선대는 다음달 5~6일, 12~13일, 19~20일 등 6차례에 걸쳐 캠퍼스 투어를 겸한 입학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례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어 ‘3만원 이하 기념품이나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민 끝에 일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학교측은 다만, 학생들에게는 제공하던 빵·음료 등 간식은 그대로 유

지기로 했다.

호남대측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평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교를 찾아 모집 전형을 설명하고 요청하는 기존 방식의 신입생 유치 행사 대신, 온라인을 통한 입학 정보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신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권익위원회 답변을 받은 뒤 영화관을 입학설명회 장소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험생 유치 행사를 열고 있다. 동신대는 22일 오전 장덕고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열었다. 관람객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각을 활용, 9시20분부터 30분 가량 간단한 학교 소개와 전형 일정을 소개한 뒤 최신 영화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 호

응도 뜨겁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동신대는 22~23일, 25일, 12월 1~2일, 6일 등 6차례에 걸쳐 35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신대는 또 전공 교수 24명이 나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진로·직업 등을 주제로 한 50여개 특강도 마련했고 29~30일 DJ센터를 빌려 수험생들에게 팝페라, 뮤지컬, 댄스 공연 등도 보여준다. 전남대도 다음달 6일까지 송원고(220명), 대광여고(375명), 동아여고(300명), 조대여고(300명) 순으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다.

이외 나머지 대학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수시모집으로 정원을 채우는 점을 감안, 정시 모집을 염두에 둔 별도 행사를 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억울한 옥살이 국가 책임 없다?

광주고법 유신 투쟁 3인 손배소 기각

유신 반대 투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도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반발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고를 지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A씨 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손을 들어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A씨 등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현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긴급조치 발령이 위헌이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위헌인 긴급조치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과 복역에 대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1인당 2725만~1억444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사후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설 준비 끝... 22일 광주시 북구 건설과 직원들이 문흥동 제설자재 보관소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 제설차량 살포기를 시험가동하고 있다.

서둘러 온 겨울... 전남 8개 시·군 한파주의보

신안·목포·여수 강풍주의보

전남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를 기해 화순·나주·순천·보성·장성·구례·곡성·담양 등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 여수 거문도와 초도, 무안, 진도, 목포, 영광, 함평, 해남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3일까

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날 밤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구례·곡성·화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5~9도 분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3일까

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일에는 무안·함평·영광 등 일부 내륙지역에서도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강온도는 더욱 낮아질겠다”며 “이번 추위는 26일 오후부터 점차 풀렸다가 다음주 초부터 다시 쌀쌀해질겠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5
해질녘 17:23
날출 01:17
날짐 14:08

겨울의 문턱으로

구름이 많고 밤에는 서해안엔 눈이 날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6	보성	구름많음	-1/8
목포	구름많음	2/6	순천	구름많음	2/9
여수	구름많음	3/9	영광	구름많음	-1/6
나주	구름많음	-1/6	진도	구름많음	3/6
완도	구름많음	3/7	전주	맑음	-2/5
구례	구름많음	-2/7	군산	맑음	-1/5
강진	구름많음	1/7	남원	맑음	-3/5
해남	구름많음	1/7	축산도	구름많음	5/6
장성	구름많음	-1/6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남부	먼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5~2.5	북서~북 1.0~2.0	
서부	먼바다(동)	북~북동 2.0~3.0	북서~북 1.5~3.0	
남부	먼바다(서)	북서~북 3.0~4.0	북서~북 2.0~3.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24	09:20
	14:44	21:53
여수	간조	만조
	10:37	04:59
	23:35	17:03

◇주간 날씨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1/7	0/10	1/10	6/11	1/9	0/11	3/12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자외선	낮음

언론사 주최 공연 티켓 판매 김영란법 무관

교사에 커피·카네이션은 저촉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침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밝혔다. TF에는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정부, 민주운동가 석방하라”

오월재단·광주인권상 수상단

5·18기념재단은 22일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연합기구 버시(BERSIH) 2.0 운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18재단은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집회를 준비한 버시 2.0 사무실을 급습해 마리아 친 압둘라와 운동가들을 체포, 구금했다”고 밝혔다.

5·18재단은 “구금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구했다.

버시는 민주개혁 운동을 펼치는 말레이시아의 시민단체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합체를 구성해 지난 2006년 출범했다. 버시 2.0은 베트남 인권운동가 누옌 단 쿠에 박사과 함께 광주인권상을 공동 수상했다.

/김형호기자k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